예수님의 치맛바람

(막9:30~37)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6.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치맛바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치맛바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대로 표현하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해서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자녀를 끌어가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마음의 목표는 언제나 첫째입니다.
근데 치맛바람의 원인이 되는 이 첫째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도 똑같은 열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서울 강남 대치동 엄마들의 치맛바람 못지않은 예수님의 치맛바람이 신앙인들을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등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망을 고려할 때, 일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신앙인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부응할 수 있는 기본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망에 부흥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우리가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인데 예수님의 치맛바람에 올라탈 수 있어야 신앙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인생에서 일등을 몇 번을 해 봤는가? 그리고 그 일등이 어디서 한 일등인가 한번 떠져보시죠.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고 누구에게 내가 거기서 일등 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라도 일등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참~ 일등 한다는 것이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어떤 단계에서든 일등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에 반에서 일등하기 어렵지요, 운동회 요즘 많이 하잖아요, 5월이라.
운동회에서 달리기 일등하기 쉽지 않죠, 학교 들어갈 때 수석합격 쉽지 않지요, 수석 졸업 쉽지 않습니다, 일등 기업 쉽지 않고 일등 기업에 일등으로 취직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등국가 되는 거 어렵습니다, 일등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리고 백 명, 천 명, 만 명, 60억이 모이더라도 그 60억이 한 가지 일에 매진할 때 일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999999999명은 일등이 안 되는데도 왜 모든 사람이 일등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것이 일등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본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
그것은 가치에 대한 사랑이에요, 가치에 대한 사랑.
내가 속한 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은, 크던지 작던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내가 얼만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등급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일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 돈을 누가 많이 갖느냐가 일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일등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일등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 하면,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를 많이 가져야 일등 하는 거니까 그 가치에 대한 사랑이 일등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일등이 아니라도 일등을 향해서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도, 모두가 다 이 가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 가치에 대한 사랑에서 사랑이라는 우리가 인격적인 단어를 얻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인간관계로 갖고 와 봅니다, 일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애인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인이 뭡니까 애인이.
적어도 그 남자에게는 이 여자가 남이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일등인 여자가 애인이 됩니다.
적어도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어떻든지 간에 그 여자의 마음에는 일등인 남자가 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한다 할 때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는 내게 일등인 이성과의 만남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일등인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등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저 남자가 내게 일등인 남자가 아니고 저 여자가 내게 일등인 여자가 아닌데 결혼한다.
이것은 정략결혼이던지, 어쩌다가 술 먹고 실수해 가지고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결혼이던지…
또 아주 좋게 얘기해서, 겸손하고 현명해서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일등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느냐?
겸손하고 현명하지요? 이것도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면 형편이 나아지면 딴 생각 품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변할지 몰라도, 결혼할 때는 이 여자가 내게 일등이라서 결혼하는 거고, 이 남자가 내게 일등이라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일등이 아닌데 하는 결혼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는 결혼이 아닌 것이지요.

자, 제자들이 일등을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등을 원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일등 되라! 좋다.
일등 되는 욕구를 예수님 방식으로 키워줍니다.
그리고 일등 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일등이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제시하는 일등이 되는 자는 이 사회에서 좋아하는 가치를 가짐에 있어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일등, 예수님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일등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등이 되면 대통령 되고 장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등은 오히려 섬김을 하게 되는 자리에 서는 게 일등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꼴찌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꼴찌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생애를 돌아볼 때 마지막 결산을 해 보니까 꼴찌에요.
특별히 좌우편에 강도를 생각하면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그리고 능력은 많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꼴찌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잔뜩 진 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진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더 꼴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예수님이 꼴찌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일등을, 당신이 일등을 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등은 내가 지금 속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일등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애인인 저 남자가 적어도 나에게는 일등인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 여자가 내게는 일등인 여자인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일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등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내가 일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등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등일 때 내가 하나님에게 일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일등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에게 일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니는 학교에서 일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일등하기를 원해요.
돈 버는데서 일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굴 생김새에서 일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기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일등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에게 일등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애인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여자에게는 내가 일등이어야 되고 저 남자에게는 내가 일등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일등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내가 일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애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내가 일등인 여자가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은 남편도 내게 이미 일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남자가 내게 일등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일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내가 일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일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자, 밤을 새워 사업이 잘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남편에게 남편이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창이 있어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그 남자친구를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입만 열면 그 남자친구 걱정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낼 수밖에 없지요.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온통 24시간 생각하면서 그 남자친구의 어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이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내게 하나님이 일등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일등인 이런 관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일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내게 일등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에게 일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일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 되면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물건, 이 세상 모~든 가치와 다~ 겨루어서 하나님이 내게 일등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일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일등이 아니면 이 관계는 무효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일등인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자가 일등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에게 일등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등인 이 사람은 꼴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신라호텔 뷔페에서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다 먹고 차까지 다 마셨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에서 라면 끓여먹고 있어요, 식구들이.
다들 밖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와서 배고프니, 허겁지겁 라면을 큰 냄비에 끓여갔고 막 먹는데, 아! 돼지 같은 놈이 딸내미 먹는 거에 몇 배씩을 한 젓가락에 먹는 거예요.
라면 먹는데 일등 이등이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신라호텔 뷔페에서 잘 먹고 왔으니 손도 안 대는 겁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막 꺽꺽 하고 난리니까 등 두드려주고 물 떠다 주고 섬기게 됩니다, 신라호텔에서 잘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집 한 칸 살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계셨고 신라호텔 같은 천국에 계셨고, 일등인 하나님아버지와 아주아주 친하게, 하나님에게 일등인 분으로서 아버지를 잔뜩 먹고 느끼고 천국을 누리고 있던 분이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세상에 내려와 보니까 전부 빈 배를 움켜쥐고 라면 끓여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라면 끓여 먹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 라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천국으로 배부르신 분에게 그 라면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겁니다.
집 한 칸, 머리 둘 곳 한 칸 마련할 이유가 없는 것은 라면 한 오라기조차 입에 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이게 바로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이 되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첫째는 어떤 첫째냐.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이긴 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이긴 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일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꼴찌죠.
돈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일등이고 내가 하나님께 일등이라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천국을 먹

으면서 배불러 가지고 돈에 대해서 원함이 없어요, 돈이라는 가치를 이겨버렸습니다.
가치를 이겼는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라면 먹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은, 라면 한 가닥도 먹지 않고 있으니까, 돈 갖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저 사람이 꼴찌인줄 알지요.
꼴찌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섬깁니까?
어린 아이를 섬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그로부터 돌아올 게 없다는 얘기에요.
돌아올 게 없어요, 되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신라호텔 뷔페에서 잔뜩 배불러 갖고 왔을 때, 물 떠다 주고, 등 두드려주고, 김치 모자라면 김치 더 떠다 준다고 해서 그들이 라면 국물이라도 남겨줄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올 것이 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예.
내가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준다고 그래도, 그 주는 것을 내 뱃속에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일등이고 하나님이 내게 일등인 자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30명으로 이루어진 클래스에서도 일등하기가 어려운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일등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 될 수가 있느냐?
간단해요 이것처럼 쉬운 일등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자리로 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함께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실제로 죽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표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는 하나님에게 일등인 자가 되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통틀어서 같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일등

이다’ 이런 상태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으면…

그런데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시는데 ‘묻기조차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묻기조차 두려워한다’ 그거 왜 그래요?
십자가 자리가 꼴찌 자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꼴찌 될 까봐.
근데 바로 그 십자가 자리가 하나님에게 일등 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 자리를 꼴찌 자리인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십자가 자리를 전하고 다닙니다.
여기가 바로 일등 하는 비결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자리가.

하나님에게 일등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일등이 되어서, 내 모~든 욕구로 완전히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뭘 주어도 세상 가치가 무엇이 주어져도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로 다 돌려보내고 섬기는 데에 써 버립니다.
신라호텔 뷔페에서 나온 자가 라면발을, 라면국물을 집어넣을 리가 없지요, 집어넣을 리가 없죠.
라면 먹는 자리, 라면 먹는 이 세상에서 꼴찌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섬길 수밖에 없지요, 신라호텔 뷔페에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의 치맛바람을 타고 일등자리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많이 갖고,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어 일등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 중에서도 다 모아 놔도 하나님이 그것들 보다 내게 우선적인 일등이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